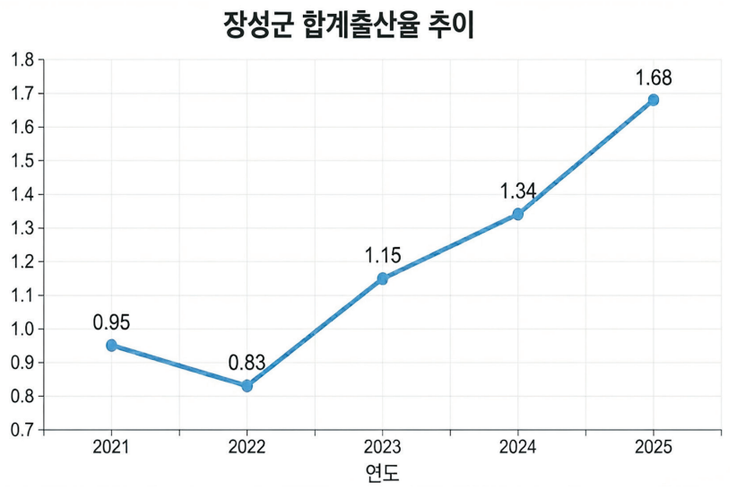
장성군 합계출산율 전국 2위… 1~2년 내 전국 최고 될까

2023년부터 반등… 2024년 전국 5위 이어 '쾌속 상승세'

김한종 군수 "인구 6만 시대, 합계출산율 1위도 충분히 가능"



장성군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5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장성군의 합계출산율은 1.68명으로 전국 2위에 올랐다.

장성군의 합계출산율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2년 0.83명까지 가라앉았다가 2023년 1.15명으로 반등했고, 2024년에 1.34명까지 뛰었다. 2025년에는 1.68명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합계출산율이 높을수록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장성군 합계출산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 오른 것은 주거, 육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꾸준히 갖춰 온 결과로 분석된다. 장성군은 기존 첫째·둘째·셋째·넷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각각 120만·250만·420만·1000만 원을 지급하던 신생아 양육비를 민선8기 출범 이후인 2023년부터 400만·600만·800만·1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고위험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 체중계, 혈압·혈당계 등을 제공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스마트 맘케어' 사업, 12주 이상 임신부에게 가사도우미, 청소 비용을 지원하는 '맘든든 가사케어' 서비스, 신혼부부 건강 검진 등 촘촘하고 세심한 지원이 돋보인다.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과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청소년 수당(꿈키움바우처), 학기당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등 교육 부문 지원도 돋보인다. 3월부터는 (재)장성장학회가 운영을 맡아 대학생 주거비 지원도 시작한다.

온 가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행복센터'도 살기 좋은 여건을 갖추는 데 일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들을 위한 활동 거점도 마련했다. 장성군은 지난 27일 청년센터 '아우름' 준공식을 갖고, 체계적인 청년 지원을 시작했다. 외식업 분야 청년들의 성장을 도울 '장성미식산업진흥원'은 오는 4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성/황해연 기자

화순 봄꽃 축제, 성공 개최 위한 축제추진위원회 회의

축제 차별화 전략 및 관광객 유입 방안 집중 논의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2026 화순 봄꽃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6 화순 봄꽃 축제'는 4월 17일부터 4월 26일까지 10일간,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개최된다. 운영 시간이 오후에 집중된 만큼 이번 축제는 '봄꽃 야행(夜行)'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주 축제장은 꽃강길 일원에서, 남산공원에서는 경관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 화순 봄꽃 축제' 기본 계획을 공유하며, 축제의 차별성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축제의 정체성 강화, 관광객 유입 확대, 현장 운영 개선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추진위원들은 화순만의 이야기가 담긴 축제 콘텐츠 기획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관광객들에게 화순만의 봄꽃 매력을 선보이고 다음 축제 때도 다시 찾고 싶은 지속 가능한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관광객 안내 서비스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대상 현장 교육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화순만의 특색을 살린 봄꽃 전시 및 야간 경관 연출 강화의 중요성도 검토됐다.

이와 함께 기념품 및 굿즈 개발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공모를 통해 화순 축제를 기념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판매함으로써 관광객 만족도 제고와 지역 홍보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화순/김종환 기자

강진사랑상품권 3월부터 최대 14% 할인 혜택

월 70만 원 한도, 선할인 10%, 모바일(착)은 캐시백 4% 더 적립

강진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상향 운영한다.

할인율 상향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도비 지원에 따른 것으로, 국비 7%, 도비 2%가 지원되며, 여기에 군비 5%로 총 14%의 할인율로 운영 된다.

할인율 상향은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되며, 1인 월 구매 한도는 70만 원이며, 선할인 10%에 후캐시백 4%로 운영된다. 다만, 지류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와 예산 절감을 위해 할인율 상향 지원은 모바일(착) 상품권에 한해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강진군은 2월 설 명절을 맞아 한시적으로 1인 구매한도를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을 15%까지 상향 운영했다. 그 결과, 2월 24일 기준 총 판매액 88억 7천 6백만 원 8중 지류 37억 5천 2백만 원(42%), 모바일(착) 상품권 51억 2천 4백만 원(58%)으로 모바일 상품권 이용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바일 상품권 후캐시백 지원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중 5%에 해당하는 후캐시백 지원액은 약 1억 1천 4백만 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상향 지원 기간동안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지류(종이)형 상품권보다 모바일(착) 상품권을 선호하는 군민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군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혜택을 높이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7년 연속 강진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연중 10%로 유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왔으며, 2026년에도 상품권 발행과 할인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장흥군,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무료검사 지원

3월부터 100여 명 대상… 조기 발견·맞춤형 사후관리 강화

장흥군은 3월부터 관내 고혈압·당뇨병 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합병증 조기 발견을 위한 무료 검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심뇌혈관질환, 신장질환, 망막병증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사전 검사를 실시해 중증질환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고, 조기 치료를 통해 건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방문해 신청한 뒤 검사의뢰서(쿠폰)를 발급받아 협약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군 보건소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 3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검사항목은 △뇌졸중 위험도 예측을 위한 경동맥 초음파검사 △만성콩팥병 조기 발견을 위한 미세단백뇨 검사 △망막병증 조기 발견을 위한 안저검사 등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에게는 맞춤형 건강상담과 지속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흥군보건소 관계자는 "고혈압과 당뇨병은 관리가 소홀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꾸준한 건강관리와 정기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합병증 조기 발견과 지속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만성질환 관리 수준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제공

곡성군 '2026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

국비 2억여 원 확보, 구직단념 청년 취업 지원

전남 곡성군은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2026년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억여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 단념·취업 취약 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신감 회복과 구직 의욕을 높이고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사업 수행기관인 '미래산업기술진흥원'과 컨소시엄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은 곡성읍 소재인 비빌언덕25에서 진행되며,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지역맞춤형 등 6가지 분야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모집인원은 52명으로, 프로그램 참여 기간에 따라 단기(1개월) 12명, 중기(3개월) 26명, 장기(5개월) 14명이며, 과정을 이수한 청년에게 참여 수당과 이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이나 교육훈련 이력이 없는 18세~35세 청년이며, 지역특화 청년으로 일부 인원은 49세까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구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다시 일어서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곡성/이정수 기자

완도군, 120억 투입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 추진

생활 인구 확대, 정주 여건 개선 등 '치유의 섬 완도' 프로젝트 가동

완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120억을 투입해 지역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행안부 주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치유산업을 중심으로 생활 인구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을 연계한 인구 정책을 높이 평가받으며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아 국비 120억을 확보했다.

군의 '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해양과 산림 자원을 연계한 '치유의 섬, 완도' 프로젝트로 치유산업 활성화,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섬 주민 통합 생활권 구축 등에 중점을 두었다.

사업은 크게 13개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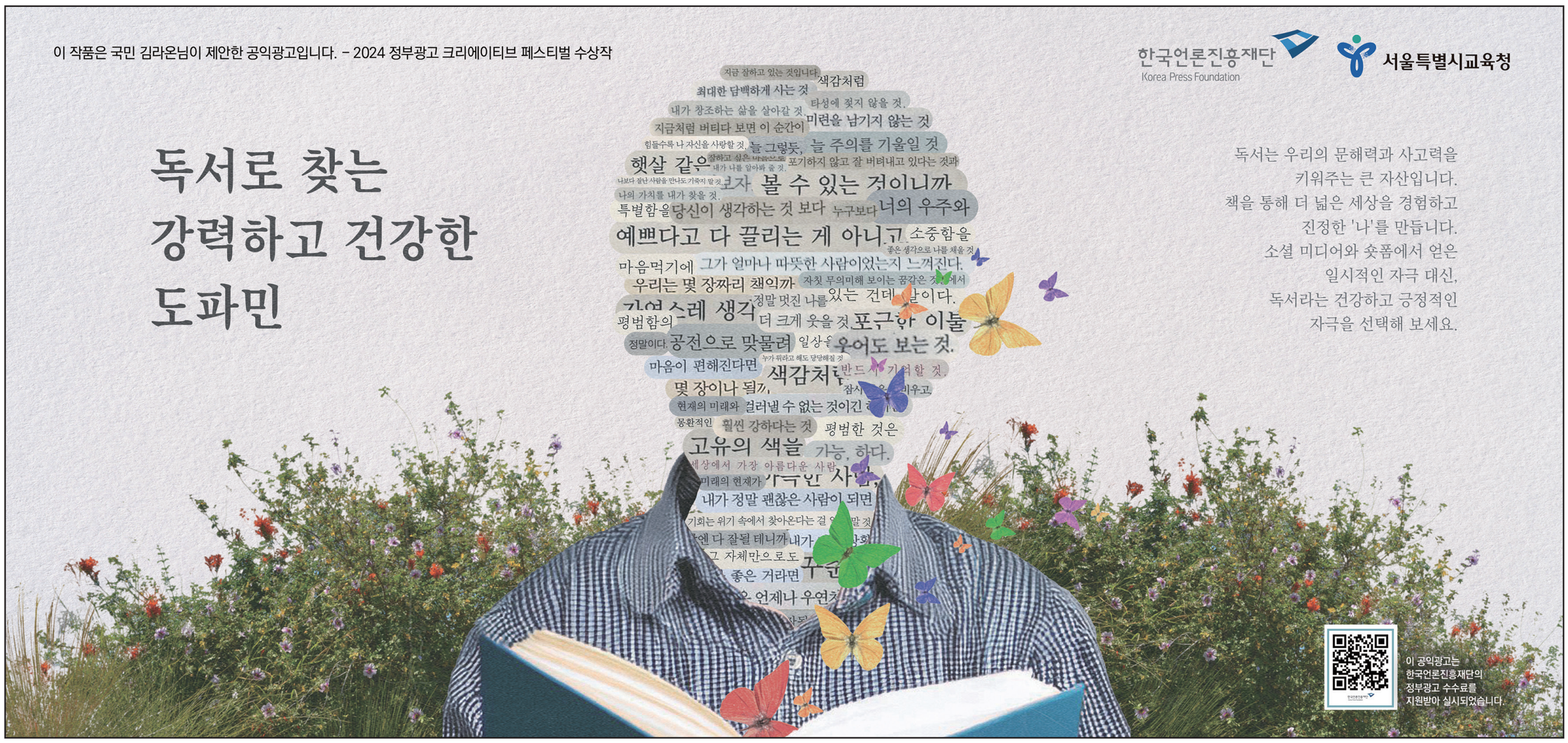
하드웨어 분야에는 93억을 투입 ▲산림치유 시설 조성 ▲블루치유 가든 조성 ▲청년 공공 임대주택 건립 ▲노화~소안 연도교 건설 ▲어린이 도심 공원 리모델링 등 주민과 생활 인구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소프트웨어 분야에는 27억을 투입 ▲완도 왔섬 힐링 패스 ▲치유 셔틀버스 운행 ▲섬(썸) 타는 칠링 버스킹 ▲해양치유 스포츠 플랫폼 ▲완도형 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체류형·관계형 인구 유입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해양자원을 활용한 청년 창업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연구 기관과 청년들의 블루푸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도 힘쓴다.

특히 해양치유와 함께 산림·음식·경관 치유 등 다양한 치유 관련 사업을 통해 단순 관광을 위한 방문 구조에서 벗어나 머무르는 생활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전환을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자리 확충, 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아우르는 종합형 인구정책 모델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 비전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